

東洋의發明 그 뿌리를 찾는가

王充의 思想

無神論者이며 인간중심적인 사상을 배격한 王充은 따라서 자연현상을 자연현상 이상으로 보지 않는다.

董仲舒는 有神論을 유교에 도입하여 天을 人格神으로 인정하고 인간의 모든 일을 天이 감시한다고 설명했다. 董仲舒가 완성해준 유교의 政治思想은 바로 이와 같은 天人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天命을 받은 王이 지상에서 天意에 따라 善政을 베풀 의무가 있다고 가정했다. 그런데 王이 善政을 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되는가?

이에 대한 안전장치로 漢代 儒學에서는 災異說이 등장한 것이다. 즉 天命을 받은 王이 지상에서 정치를 잘하지 못할 경우에는 天은 자연 속에 온갖 이상한 현상을 일으켜 王을 譴告한다는 것이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失政이 거듭되면 天命을 회수해버려 革命이 일어난다.

王充은 바로 이와 같은 董仲舒의 災異說도 맹렬히 반대했다. 이미 天에 아무런 意志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서는 자연현상이 天意의 표현일 수는 없었다——“天道는 自然이며 無爲이다. 만약 하늘이 인간을 譴告한다면 이는 有爲이며 자연스럽지 않다.”

비슷한 태도는 이미 전국시대에 荀子에 의해서도 표현된 적이 있다. 그러나 漢代에 들어와 災異說이 확립되고 몇몇 재상은 災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까지 한 상황 속에서 이를 부인한 것은 王充의 용기라고도 할 수 있겠다.

그는 가뭄과 홍수가 모두 때가 되면 그렇게 된 것이 지 인간의 잘잘못과는 아무 관계도 없다고 주장했고 기후가 때에 알맞게 추워지고 따뜻해지는 것도 자연현상일 뿐이라 풀이했다. 또 정치의 잘못으로 日蝕·月蝕이 생기는 것도 아니어서, 이 경우에는 일식·월식은 週期성을 가진 것임을 보여주기까지 했다. 그는 일식은 대강 41~42개월에 한번 일어날 수 있고, 월식은 180일에 한번꼴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王充은 漢代의 지배적인 自然觀을 모두 부정한 탁월한 사상가였고, 그의 사상은 당시로서는 극히 合理的이었고 그만큼 더 科學적이었다고 하겠다. 그 때문에 오늘날 그의 위치는 중국사상사와 중국 과학사에 아주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論衡>이 당대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 같다. 어쩌면 큰 영향을 주기에는 너무나 참신한 주장이었을지도 모른다. 그의 <論衡>은 丁若鏞등 우리나라의 학자들에게까지 읽혀지고 있었음이 밝혀지고 있으나 그렇다고 그의 영향을 너무 크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六朝時代의 鍊丹術

王充의 합리적 사상이 오래가기 어려웠던 중요한 이유의 하나는 정치적 정세의 변화였다. 後漢이 기원 220년에 멸망하자 중국은 589년 隋에 의해 다시 통일되기까지 분열과 갈등의 시대에 말려들었고 이런 정치적 혼란기에는 合理主義보다는 神秘主義가 보다 어울렸을 것은 분명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後漢이 멸망한 뒤 중국은 유명한 三國으로 나뉘었다. <三國志>로 나

- …… 우리는 흔히 現代 發明科學은 17世紀 이후 西洋에서 始作된 것의 延長으로 東洋의……○
- ……發明科學과는 關聯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크게 잘못된 생각……○
- ……이다. 發明科學史는 西洋의 것만이 아니라 東洋의 것도 包括하고 있기 때문이다. ……○
- ……특히 東洋 發明科學史 중에서도 지금 우리의 血管속에 흐르고 있는 韓國 發明……○
- ……科學史의 背景을 이루는 中國의 發明科學的 傳統에 이해가 극히 重要함을 느끼게……○
- ……된다. ……○
- ……이와 함께 佛敎를 통하여 우리의 傳統文化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 印度의 自然……○
- ……觀과 우리와 비슷한 傳統에 속하면서도 재빨리 近代 發明科學과 技術의 수용에 成……○
- ……功하여 先進國으로 成長한 日本의 近代 發明科學의 발달상을 살펴볼 必要가 있다. ……○
- ……이에 本誌는「韓國의 發明 그 뿌리를 찾는다」에 이어「東洋의 發明」의 뿌리를 追……○
- ……跡해 보았다. ……○ <編輯者 註> ……○

무나 유명해졌던 이 시대는 魏·吳·蜀의 갈등이 곧 魏의 계통을 이은 六朝와 그밖의 분열된 王朝가 꼬리틀이어서 반복되는 혼란으로 이어졌다. 소위 六朝시대가 열린 것이다.

六朝시대의 신비주의 경향은 道敎에 의해 즉각 흡수되어 소위 道士라고도 불리우는 方士 또는 術士들이 이 전통속에 크게 성장하게 되었다. 老子와 莊子에 의해 시작된 원래의 道敎는 지극히 자연주의적인 철학사상이었으나 그다지 神秘的인 경향을 띠었다고는 하기 어렵다. 실제로 王充은 바로 도교의 영향속에서 지극히 合理的인 자연관을 내세워 迷信化解가는 유교를 비판했던 것이다. 훨씬 전부터 方士나 術士는 중국에 일어났으나 그것이 道敎의 탈을 쓰기 시작한 것이 六朝시대라는 뜻이다.

이 神秘사상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不老長生을 이상으로 내세우는 神仙術이다. “竹林七賢”으로 대표되는 裴락주의 또는 이기주의적인 태도는 사실상 이때 이후 동양의 지식층, 즉 士大夫들의 변함없는 꿈이 되었다. 이 시대의 도피사상은 그 뒤 士大夫들이 그들의 정치적 야망을 이룰 수 없을 때면 언제나 시골에서 田園생활을 즐기겠다는 “自然으로 돌아가는” 태도를 심어준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보다 더 적극적인 神仙術은 어떻게 전개되어 온 것일까? 실제로 神仙사상의 발달은 戰國시대 이전까지 거슬러 오를 수 있으나 그것이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경우로는 秦始皇(247~210 B.C. 在位)이나 漢의 武帝(141~87 B.C. 在位)를 들 수 있다. 秦의 시 황제는 신선사상을 믿고 不老不死의 仙藥을 구하기 위해 方士 徐福을 시켜 童男童子를 이끌고 바다 저쪽의 仙山으로 파견했다. <史記> 封禪書에도 나오는

것처럼 당시 사람들은 중국의 동쪽 바다, 즉 勃海속에 三神山이 있고 그 산속에는 仙人이 있고, 不死藥이 있다고 믿었다. 거기 있는 것은 모두가 흰빛이며 궁궐은 황금이나 백금으로 지어져 있다. 멀리서 보면 구름과 같이 보이고 가까이 가보면 그곳은 물아래에 있음을 알게 된다. 거기 이르면 바람이 불어 더 이상 접근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런 신선이 사는 三神山으로는 보통 蓬萊·方丈·瀛州의 셋이 일컬어졌고 우리나라의 금강산이 蓬萊山으로 불리게 된 것도 여기 기원한 것임은 물론이다.

漢武帝도 神仙術에 들떠있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秦始皇이 거느린 方士들이 三神山에 가서 이미 거기 있다는 不老長生藥을 구하려 한 것과는 달리 漢武帝 밑에 있던 李少君등의 方士들은 不死藥을 만들려고 노력했다. 즉 불사약 丹을 얻으려는 노력은 바로 人工 不死藥을 제조하려는 것이었고 이 과정에서 발달한 것이 古代의 化學이었던 셈이다. 그후 줄곧 중국과 한국, 일본등의 方士들은 不死藥 丹을 만드는데 온갖 정력을 기울였고, 이런 경향은 같은 연구를 金을 만드는데 기울여온 서양의 전통과 크게 다르다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鍊丹術의 전통이 後漢末의 魏伯陽에 의해 <周易參同契>란 책으로 남게 되었고 이를 더욱 뚜렷이 후세에 남긴 것이 葛洪(283~363)의 <抱朴子>이다. 이들 책을 통하여 후세에 크게 발달한 鍊丹術은 內丹과 外丹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호흡을 조절한다거나 좋은 일을 함으로써(積善), 또는 음식을 즐기거나 곡식을 끊어감으로써 不死의 경지에 이르는 길이 內丹이라면 이와 달리 밖으로부터 인체에 무엇을 加하여 不死에 이르는 길을 外丹이라 했다. 丹을 만들어 먹는 것은 다른 약품의 복종과 함께 外丹이 되는 셈이다. <계속>